

서울 포교 100년, 조계사의 역할과 불교의 미래

조계사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조계종단의 중심 도량이며 한국 불교의 심장인 조계사가 서울 포교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꽃 피우고 원효(元曉) · 의상(義相) · 도의(道義) · 의천(義天) · 지눌(知訥) 등 동아시아 사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하며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였던 불교가,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억눌려 간신히 명맥(命脈)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중심인 서울 안에 절을 짓지 못하고 스님들은 도성 출입을 금지 당하기까지 하는 간난(艱難)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문(佛門)을 지켜온 스님들은 교학(敎學)을 연찬하고 참선(參禪) 수행하는 본분사(本分事)를 잠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인쇄문화를 비롯하여 전통문화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일을 주도하였으며,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 앞장서서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민중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는 보물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00년전 조선의 억불정책은 사라졌지만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침탈하여 온 국민이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에 신음할 때 선각자 스님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민중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 중앙인 현 조계사 자리에 각황사(覺皇寺)를 창건하였습니다.

권상로스님이 지은 각황사 상량문은 “이 절을 짓고 난 뒤에는 집집마다 부처님을 받들고 사람들이 모두 진실해져서 부처님 법문을 듣던 영축산(靈鷲山)의 1,200 대중처럼 불법(佛法)을 공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마음 놓고 드나들 수조차 할 수 없었던 서울 중심에 절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당시 스님들의 가슴 벅찬 감동이 얼마나 대단하였을지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 동안 끊어졌던 도심포교는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옛말처럼 각황사가 세워진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서울 시내에 절 수십 곳이 창건되고, 1913년에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인도에 대각회(Maha Bodhi Society)를 세워 부처님 성도지인 붓다가야 성역화 사업 등을 선도하며 인도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다르마팔라(Dharmapala)스님이 우리 불교계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전해주어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강산이 열 번 바뀌는 세월이 흘러, 좁은 공간에서 ‘각황사’로 시작하여 1930년대 말 ‘삼각산 태고사’로 크게 중창하게 된 조계사는 이제 어엿한 수행 도량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와 이웃하여 우리 종단의 중앙종무기관 및 불교박물관 등이 자리 잡아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며 희망의 등불을 세상에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이제 단순히 불자 대중들만을 위한 수행 공간의 차원을 넘어 도심 생활에 찌든 일반인들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휴식 공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대한 비전을 실천에 옮길 원력과 능력을 갖춘 토진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조계사를 명실상부한 한국 불교의 중심도량으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어려운 시대 상황을 이겨낸 조계사는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원력과 의지를 모아 변함없이 “한국 불교, 나아가 세계의 불교를 이끄는 중심도량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가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취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것이 작은 회사이든 아니면 거대 국가이든 곧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으며 우리 종단이나 조계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찬란했던 불교문화’와 ‘한국불교의 중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만 갇혀 있다가는 멀지 않은 시기에 ‘역사의 2류·3류’로 전락(轉落)할 수도 있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이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 시대의 변화를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이 세상을 정토(淨土)로 가꾸는 보살 행자(菩薩行者)·역사의 향도(嚮導)가 되기 바랍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 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희망을 찾는 조계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여러분!

조계사는 우리 종단의 근본 도량입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꿈이며 미래입니다.

조계사는 온 세상에 맑은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어 향기로운 연꽃 가득한 정토로 가꾸는 ‘자비(慈悲)와 희망의 샘물’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